

# 명동·서울역·인사동 오가는 '노란버스' 4개 노선 생긴다

### 서울 도심 주요지점·관광명소 연결하는 노선

###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로 적자 매꾸

명동, 서울역, 인사동, N타워, 경복궁 등 서울 도심 주요지점과 관광명소를 기존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노란색 '녹색순환버스'가 첫 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도심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을 달리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운영을 29일 전면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통식이 열리는 29일은 오전 10시 첫 운영을 시작하며, 30일부터는 오전 6시 30분(첫차)부터 운행한다.

일일 총 27대 버스가 투입돼 오전 6시30분(첫차)~밤 11시(막차)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시내

버스 요금(1200원)의 절반인 600원이다. 특히, 같은 번호의 '녹색순환버스'끼리는 30분 이내로만 재탑승하면 추가 요금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회까지 무료 환승)

지하철, 시내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해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같은 번호의 시내버스 하차 후 재탑승시에는 환승 적용이 안돼 요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시는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되, 향후 차량 출고와 충전설비 마련시기 등을 고려해 5월까지 100% 저상 전기차량으로 교

체,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1일 시작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내버스 노선으로 연계가 미비했던 구간(중로-중구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용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심 내 순환버스 운행이 어려웠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을 활용해 운영적자를 보전, 운행이 가능해졌다.

현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승객 수요가 적으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이 커져 그동안 도심 순환버스는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아울러, 시내버스(간선·지선·광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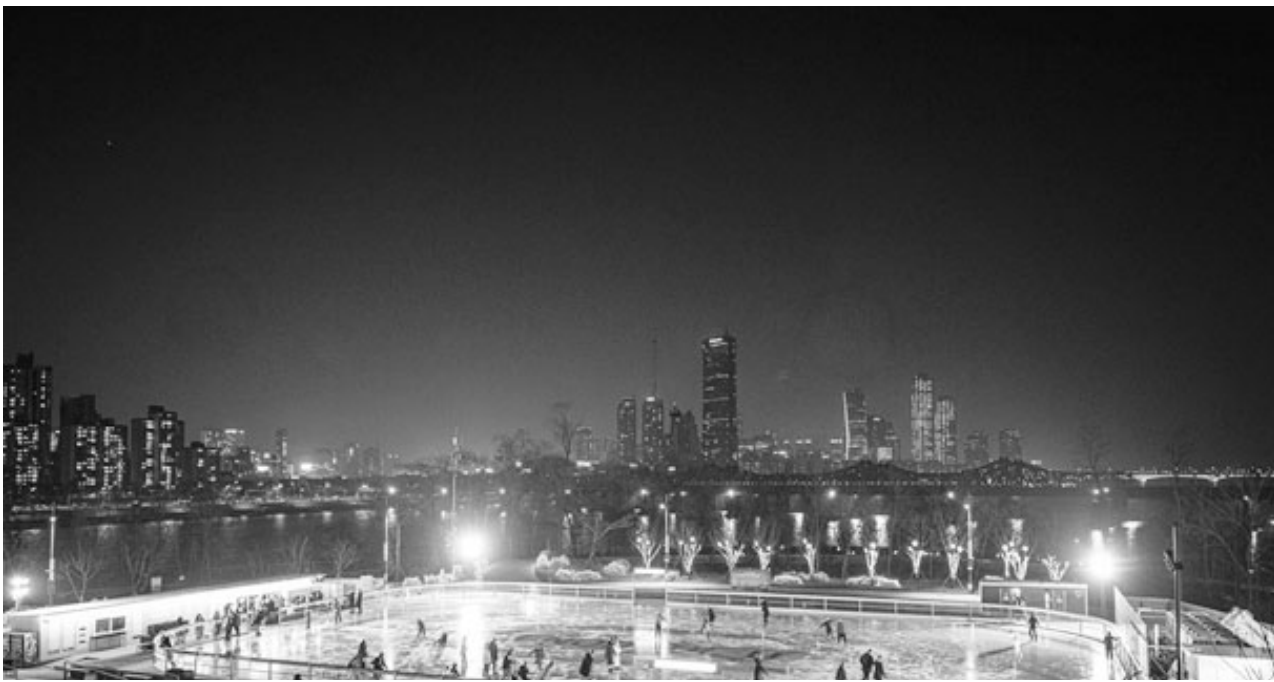


환) 가운데 기존 남산순환버스 외에는 역할이 미미했던 순환버스 추가 투입으로 도심 내 다양한 통행수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노선은 ①도심외부순환(01번) ②남산순환(02번) ③도심내부순환(03번) ④남산연계(04번)이

다. 교통카드, 택시, 파름이 이동데이터 등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 시민들의 주 활동지역인 업무지구(시청·을지로 일대)와 관광객들의 주 목적지(인사동, DDP, 명동, 남산N타워 등), 고궁(경복궁, 덕수궁, 윤현궁 등)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향후 승객수요, 이동현황, 배차간격 등을 모니터링해 지속 보정·보완할 예정이다. 승객수요에 따른 차량 확대도 도심 내 이동편의 및 도심·부도심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부회장은 "도심 내 주요 고궁·관광지·쇼핑을 보다 쉽게 연계하는 순환버스의 도입으로 개별 외국인 등 관광객의 이동 편의증진,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겨울명소 된 노들섬 스케이팅장 한강 노들섬 야외스케이팅장이 새 겨울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야외스케이팅장 주변에는 눈꽃조명과 경관조명, 안개조명을 설치, 겨울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애경그룹, 송도에 '종합기술원' 세운다...연구 전담조직 신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 매매 계약

애경그룹이 송도에 종합기술원을 건립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애경그룹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B구역 내에 부지 8688평(2만8722㎡)를 345억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애경그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애경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애경유화과 애경산업이 각각 6:4의 비율로 투자했다. 애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은 총 연면적 1만

3007평(4만3000㎡) 규모로 건설된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애경그룹은 송도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기초, 원천,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송도 종합연구원에 연구개발 인력만 400명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 소재개발 △독자기술 확보 △친환경&바이오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서 AK홀딩스 사장은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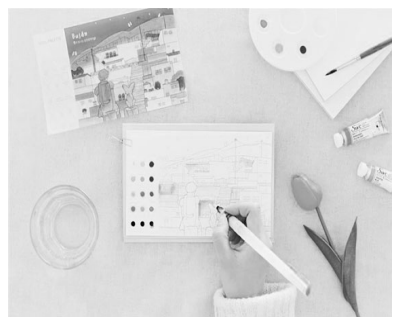
경그룹 송도 종합기술원 설립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며 "그룹의 주력 사업인 화학, 생활용품, 화장품 분야에서 쉼터 접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애경그룹 종합기술원 유치는 최첨단 미래 기술 연구의 메카인 송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연구중심 도시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애경그룹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조폐공사, '컬러링 키트'로 청년예술가 돕는다

한국조폐공사가 21일 대학생 및 청년기업인으로 구성된 국민기획단과 함께 청년예술가를 돕는 수채화 컬러링 키트 '소울 팔레트'를 출시했다.

조폐공사가 '청년이 꿈꾸는 사회'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원한 '소울 팔레트'는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채화 물감, 붓, 종이 등을 패키지로 담았다. 청년예술가 5인의 시각으로 해석한 국내 유명 여행지 10곳의 밑그림이 제공된다. 자신이 여행하고 있는 곳의 풍광을 직접 담을 수도 있다. 감성적인 패키지와 간편하게 그림



을 그릴 수 있는 편의성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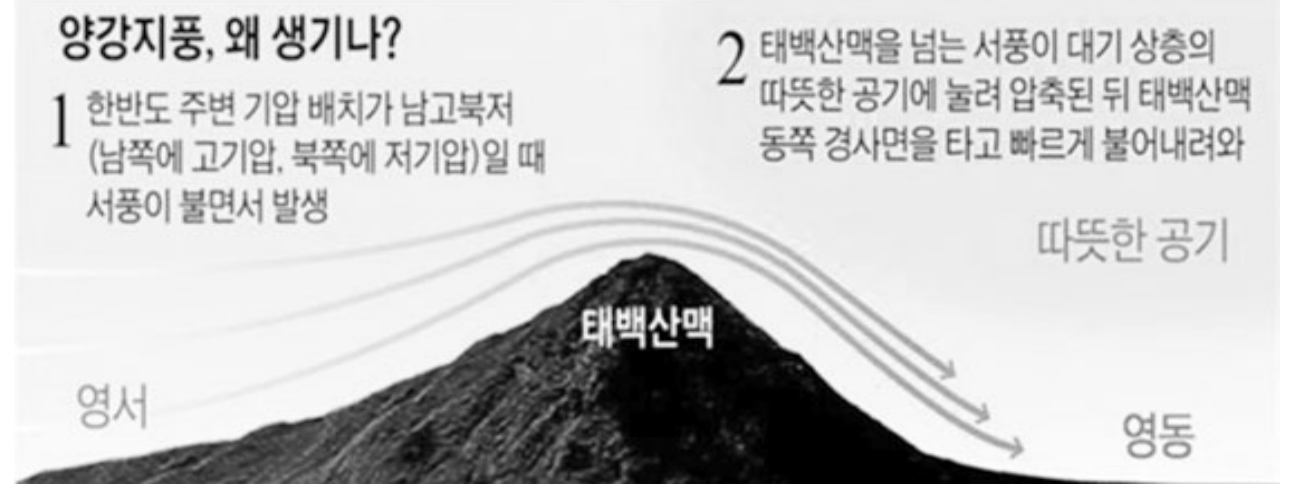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부터 제품화까지 사업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조폐공사는 이를 지원했다. 조폐공사는 참여 청년예술가들에게 디자인 로열티를 지

급하고 판매수의 일부도 청년예술가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소울 팔레트'는 2월 16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의 '여행을 담은 수채화 컬러링 키트'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조폐공사 정삼윤 기획이사는 "'소울 팔레트'가 청년예술가들이 열정과 재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 강원도, '양간지풍 산불 피해' 빅데이터로 줄인다

강원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철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양간지풍'에 의한 산불 재난에 대처한다.

강원도는 행안부 주관 '2020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R&D 사업' 공모에서 '빅데이터 기반 양간지풍 도시산불 긴급 대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3년간 20억 7000만원을 들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 고화질 CCTV 설치, 열영상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고 동해 안산불방지센터 산불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양간지풍 도시산불 대응전략 및 계획 수립,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산불 긴급대응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산불확산 모

니터링 실증지역 조성, 산불진화 차량 내 위치정보 및 동영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양간지풍은 봄철(3~5월) 영동 지역의 남북고저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형 태풍급 바람으로 양양-간성(고성), 양양-강릉 구간에서 불어 앞 글자를 따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으로 불린다.

양간지풍은 산불 확산속도가 진화속도보다 빨라 단시간 피해면적이 확대돼 진화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월 고성·속초 산불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침엽수림이 많고 불·가을 건조한 기후로 인해 국내 전체 산불 피해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구 1만명당 화재건수 전국

2위,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국 1위로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앞서 도는 영동지역 산불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8년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다양한 부처의 시스템을 통합·관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입체적 대응 체계 구축이 목표다.

최정집 도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4차 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별 재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다"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상황에 자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뉴스1

## 설 연휴 제주공항 항공기 2580편 운항...임시편 112편

올해 설 연휴 기간 제주국제공항에 임시 항공편 112편을 포함해 총 2580편의 항공기가 운항된다. 제주공항 이용 예상인원은 44만여 명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분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제주공항을 이용할 예상 승객은 약 44만68% 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도 설 연휴 기간 대비 10.2%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8만9379명이

제주공항을 오가는 셈이다.

항공기는 하루 평균 516편, 총 2580편이 제주공항에 뜨고 내릴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9.4% 늘어난 규모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제주분부는 설 연휴 기간 항공수송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통

대책'을 설치·운영한다.

설 연휴를 대비해 공항시설과 장비, 여객편의 시설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한 간부급 합동 안전점검 및 재난 대비 태세 점검 등을 진행했다.

본부는 주차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내장산 겨울빛축제'...한 달간 3만명 몰려 '대박'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 정읍시가 준비한 겨울 이벤트 '내장산 겨울빛축제'에 전국의 관광객이 몰려 들며 '대박'을 터뜨렸다.

21일 시에 따르면 축제장에 평일 5000여명, 주말에는 30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정읍을 찾아와 축

제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3만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빛을 테마로 정한 이 축제는 평소 운치있는 풍경으로 유명한 내장산이 밤을 배경으로 빛과 어우러져 축제 방문객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설경이 아름다운 내장산 단풍터널 500m 일원에 은은하고 조롱한 LED 조명이 설치돼 단풍 빛 터널과 눈꽃정원, 별빛정원 등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더해져 근사한 추억의 시간을 선물한다.

## 충남대, 22일 지역혁신성장 포럼 개최

충남대학교는 제2회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 준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포럼을 오는 22일 충남대 CNU 홀에서 개최한다.

충남대가 주관하고 대전권대학

발전협의회, 충남권 대학 및 지역 인재육성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자체·대학·출연연간 협력을 위한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기관들 간 협력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의 비전과 해외 사례, 구현 아이디어 및 추진계획, 현황 공유 등이 논의된다.

충남대는 포럼 후 지자체와 대학,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세종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과 함께 RIS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사전 추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1